

## 慧琳 《一切經音義》 蟹攝의 음운 체계

박 성 준\*

## 〈目次〉

I. 서론	III. 慧琳 《一切經音義》의 蟹攝
1. 연구 목적	1. 1등운
2. 연구 범위와 방법	2. 2등운
II. 전기 중고 시기 蟹攝	3. 3·4등운
1. 蟹攝의 형성과정	IV. 결론
2. 3·4등 개음	

## I. 서론

## 1. 연구 목적

상고 한어 시기부터 중고 한어 시기로 넘어가면서 음운 체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두 시기를 구분한다. 풀리블랭크(Pulley blank 1984)는 중고 시기를 《切韻》系韻書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 중고 한어(EMC, Early Middle Chinese) 시기와 等韻圖를 중심으로 하는 후기 중고 한어(LMC, Late Middle Chinese) 시기로 분류했다. 전기 중고 한어 시기에서 후기 중고 한어 시기로 넘어가면서 음운 체계에는 또 다른 여러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중고 한어에서 후기 중고 한어로 시기가 변화하면서 어떠한 음운변화가 일어났는지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고 그 음가의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전기 중고 한어와 후기 중고 한어 사이의 작품인 慧琳 《一切經音義》의 반절을 분석하여 전기 중고 한어 시기에서 후기 중고 한어 시기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음운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전기 중고 한어와 후기 중고 한어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며, 그 사이 과도기 시기의 작품인 慧琳 《一切經音義》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姚永銘(2003), 金雪萊(2005), 趙翠陽(2009) 등 여러 학자들은 이미 慧琳의 《一切經音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姚永銘(2003)은 慧琳의 《一切經音義》에 대해서 文字編, 音韻編, 訓詁編 등 다양한 부분을 연구했다. 音韻編에서는 聲調 방면에서 全濁上變去<sup>1)</sup> 현상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慧琳의 《一切經音義》가 中古音 연구에서 가지는 역할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姚永銘(2003)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金雪萊(2005)는 慧琳의 《一切經音義》의 반절을 모두 繫聯하여 그 음운 체계를 자세히 분석했다. 성모, 운모, 重紐 현상, 성조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서 연구를 진행했다. 慧琳 《一切經音義》의 반절을 분석하여 성모와 운부의 분합 양상을 자세히 보여주고 음운 체계를 설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趙翠陽(2009)은 慧琳의 《一切經音義》의 운부를 자세히 분석했다. 慧琳 《一切經音義》 글자의 반절을 분석하고 운부의 분합 양상에서 이전의 연구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표를 이용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운부의 분합 양상을 더욱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의 세 연구 모두 성모나 운부의 분합 양상만을 보여주며, 각각의 음가를 재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1) 全濁上變去는 濁上變去라고도 한다. 중고 시기 全濁 성모 上聲 글자가 去聲 글자가 되는 현상이다.(楊劍橋 2008: 184)

본 연구에서는 慧琳 《一切經音義》의 반절을 분석하여 전기 중고 한어 시기의 음운 체계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음운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慧琳 《一切經音義》 蟹攝의 음가를 재구하고 음운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와 방법

慧琳(737~820)은 盛唐시기부터 中唐시기를 거친 당나라 시기의 승려로, 서역 疏勒國(현재 新疆의 喀什지역)사람이었다. 慧琳 《一切經音義》(783~807)는 中唐 시기의 중요한 불경 音義書 중 하나이다. 1233部 5250卷으로 불교 경전의 어휘에 대해서 形·音·義 등에 관해 주석했으며,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慧琳 《一切經音義》가 반영하고 있는 음운 체계에 대해서는 크게 韻書派와 實際語音派 두 가지 주장이 있다.(艾菲 2010: 24-28)

첫째, 韻書派는 慧琳이 몇 권의 韻書를 기초로 하여 반절을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慧琳 《一切經音義》에서 하나의 글자에 여러 가지 다른 반절을 사용하였다는 측면으로 보아 동의하기 어렵다.

둘째, 實際語音派는 慧琳이 어떠한 韻書에 기초하지 않고, 당시 실제 음성을 기초로 하여 반절을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반절을 작성했다고 가정하면, 慧琳 《一切經音義》에서 하나의 글자에 여러 가지 다른 반절을 사용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實際語音派는 다시 方音派와 正音派로 나뉜다.

方音派는 慧琳이 기초로 한 실제 음성이 關中方音이거나 關中方音과 유사한 언어라는 주장이다. 周法高(1948b: 368)와 黃淬伯(1998: 5) 등의 학자들이 이 학설을 주장했다. 특히, 黃淬伯(1998)은 慧琳이 長安에서 20여 년 거주한 사실을 근거로 關中方音이 慧琳 《一切經音義》의 음운기초라고 주장하였다.

正音派는 慧琳이 기초로 한 실제 음성이 당시 사대부 계층에서 사용된 표준음이라는 주장으로, 儲泰松(2005: 23)이 이 학설을 주장했다. 그는 慧

琳의 釋文에 나타나는 ‘俗呼’, ‘俗音’, ‘鄉音’을 당시 표준음인 ‘雅言’, ‘正音’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고, ‘雅言’, ‘正音’은 당시 사대부 계층에서 사용한 표준음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實際語音派 正音派의 주장에 동의한다. 慧琳 《一切經音義》에는 ‘非典語’, ‘時俗語’라는 주석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주석은 이와 대립되는 ‘正音’, ‘典語’가 당시 표준음 체계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즉, 慧琳이 기초한 음성 체계가 바로 ‘正音’, ‘典語’과 같은 당시의 표준음이라는 것이다. 또, 당시 고위계층이 慧琳 《一切經音義》를 중시했는데, 이러한 사실 역시 慧琳 《一切經音義》가 당시 고위계층에서 사용한 표준음을 기초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艾菲 2010: 27-28)

본 연구는 慧琳 《一切經音義》의 蟹攝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통해 어떠한 음계를 형성하였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6가지의 攝 중에서 蟹攝을 대표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박성준 2021: 1-2)

첫째, 蟹攝은 外轉을 대표하는 攝이다. 중고 시기의 攝은 크게 內轉과 外轉으로 나누어진다. 대체로 內轉에 속하는 운들은 고모음을 가지고 있으며, 外轉에 속하는 운들은 저모음을 가지고 있다.<sup>2)</sup> 또한 內轉은 진정한 2等韻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外轉은 진정한 2등운을 갖추고 있다.<sup>3)</sup> 2등운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外轉을 연구해야 하므로, 外轉을 대표하는 攝 중의 하나인 蟹攝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했다.

둘째, 蟹攝에는 중고 한어 시기의 중요한 음운 현상인 重韻 현상과 重

2) 羅常培(1933:222-223)은 內外轉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內轉이란 후설모음[u] [o], 중설모음[a], 고모음[i][e]가 있는 韻를 포함하고, 外轉이란 전설모음[e][ɛ] [æ][a], 중설모음[ɐ], 후설모음[a][ɔ]가 있는 韻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3) 《四聲等子》의 ‘辨內外轉例’에서 “內轉은 脣舌牙喉音의 四音에 二等字가 전혀 없고, 齒音에만 갖추어진 것이며, 外轉은 五音에 四等이 다 갖추어진 것을 말한다. 이제 深曾止宕果遇流通攝으로 內轉 67韻을 묶고, 江山梗假效蟹咸臻攝으로 外轉 139韻을 묶는다.(內轉者脣舌牙喉四音更無第二等字唯齒音方具足外轉者五音四等都具足今以深曾止宕果遇流通括內轉六十七韻江山梗假效蟹咸臻括外轉一百三十九韻.)”라고 말한다.

紐 현상이 있다. 重韻은 攝, 等, 開合口가 같은 상황에서 두 개 혹은 세 개의 韻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1等韻과 2等韻에 나타나는 현상이다.(楊劍橋 2008: 162) 예를 들어, 蟹攝에 속하는 佳韻과 皆韻은 모두 2등운이며, 모두 개구와 합구를 가지는 중복되는 韻으로, 重韻이다. 重紐는 支, 脂, 祭, 眞(諄), 仙, 宵, 侵, 鹽 8개의 3등운 글자 중 脣·牙·喉音 聲母字<sup>4)</sup>에서 개구와 합구의 차이 외에도 反切下字가 또 다른 두 류로 나뉘는 현상을 의미한다.(楊劍橋 2008: 162) 이를 韻圖에서는 구분하여 각각 3등과 4등 칸에 배열하지만, 실제로는 3등과 4등이 같은 韻인 것이다. 이러한 重紐는 모두 3등운에 속하지만, 등운도에서 4등 칸에 배치되는 순·아·후음을 일반적으로 重紐 4등 또는 重紐 A류라고 부른다. 등운도에서 3등칸에 배치되는 순·아·후음을 일반적으로 重紐 3등 또는 重紐 B류라고 부른다.<sup>5)</sup>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명칭을 따른다.

셋째, 蟹攝에는 1등운부터 4등운까지 모든 등운이 있으며, 거성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韻이 존재한다. 따라서 蟹攝을 연구하면 1등운부터 4등운까지 각 등운에 나타난 음운변화를 모두 연구할 수 있다. 전기 중고 시기 蟹攝에는 19개의 韻이 존재했는데, 이는 <표 1>과 같다.

<표 1> 중고 시기 蟹攝의 韻 (박성준 2021: 2)

	평성	상성	거성
1등운	哈韻	海韻	代韻
	灰韻	賄韻	隊韻
			泰韻
2등운	皆韻	駭韻	怪韻
	佳韻	蟹韻	卦韻
			夫韻

4) 喉音에는 影·曉母만 포함된다. 匣母는 3등운이 없으므로, 重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喻母는 3등운과 4등운에 모두 나타나지만, 이 차이는 상고 시기 성모 기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重紐 현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周法高(1948)가 처음으로 제시했다.

	평성	상성	거성
3등운			祭韻
			廢韻
4등운	齊韻	霽韻	霽韻

黃淬伯(1931)에서 蟹攝의 각 글자의 반절을 찾고, 그 반절을 분석하여 각 韻의 분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지 않던 韻의 글자가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면, 이는 분명 어떠한 음운변화가 발생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Ⅲ장 1절에서는 서로 다른 1등운인 哈·灰韻과 泰韻의 반절을 분석하고, 2절에서는 서로 다른 2등운인 佳韻, 皆韻, 夬운의 반절을 분석할 것이다. 1절과 2절을 통해 1·2등 重韻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한다. 또, 3절에서는 3등운인 祭韻, 廢韻과 4등운인 齊韻의 반절을 분석하여 3·4등운이 서로 혼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4등운에 개음의 생성 여부와 그 개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 II. 전기 중고 시기 蟹攝

풀리블랭크(Pulleyblank 1984)는 중고 한어 시기를 《切韻》系 韻書를 대표로 하는 전기 중고 한어와 等韻圖를 대표로 하는 후기 중고 한어로 구분한다. 전기 중고 한어 음운 체계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切韻》(601)이 반영하고 있는 음운 체계가 어떠한 음운 체계인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단일음계설이다. 이는 《切韻》의 음운 체계가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지역(一時一地)의 음운 체계를 대표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종합음계설이다. 이는 《切韻》의 음운 체계가 古今의 음과 南北의 음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종합 음운 체계라는 주장이다.

《切韻·序》에서는 ‘남북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고금의 통합과 막힘을 논했다.(論南北是非, 古今通塞)’라고 한다.<sup>6)</sup> 이를 고려하면 《切韻》의 음운 체계를 어느 한 시기, 한 지역의 음운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단일음계설로 보기 어렵다. 또한 《切韻》이 엄밀한 체계성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하면, 각 지역의 방언과 고금의 음운 체계를 혼합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본 논문은 《切韻》이 그 당시의 표준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풀리블랭크(Pulleyblank 1984)의 의견에 동의한다.<sup>7)</sup>

### 1. 蟹攝의 형성과정

박성준(2021)에서는 전기 중고 한어의 蟹攝의 형성과정을 연구했다. 첫째, 1등운 哈·灰韻은 齊·梁·陳·隋 시기부터 하나의 독립적인 韻을 형성하였다. 鄭張尚芳에 의거하여 齊·梁·陳·隋 시기 哈韻의 운모는 -ai로 재구하고, 灰韻의 운모는 -wai로 재구했다.<sup>8)</sup> 또 다른 1등운 泰韻도 齊·梁·陳·隋 시기부터 하나의 독립적인 韻을 형성하였다. 鄭張尚芳(2003: 212-218)에 의하면 거성 운미가 \*s > -ih > -j<sup>9)</sup>의 변화과정을 경과하는데, 이 시기에

- 6) 《切韻·序》에 ‘그래서 남북 지역 간의 차이와 고금 시대에 따른 차이를 논하고 더욱더 정확하게 들어맞는 음을 고르고, 정확하지 않고 느슨한 음들은 삭제해 버렸다.(因論南北是非, 古今通塞, 欲更揀選精切, 除削疏緩)’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최영애 2000: 47)
- 7) 풀리블랭크(Pulleyblank 1984: 2-3)는 표준음은 형성과정에서 방언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왕조의 변천과 같은 사건으로 수도가 이전되면서 음운 체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준음 체계가 이에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3세기 洛陽 방언은 南京의 표준음으로 남아있었으며, 5세기 北魏가 재통일을 했을 때 수도는 또 洛陽이었다. 분단 시기에 남과 북의 표준음은 확실히 같지 않았지만, 그들은 공통된 조상에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전해졌으며, 하나의 표준음에서 변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隋 시기 남과 북이 재통일 된 후에 長安에서 완성된 《切韻》은 이 洛陽 표준음의 증거이다.
- 8) 鄭張尚芳(2003: 163)에 의하면 之部 기원 중고 哈韻이 \*uu > \*-əu > \*-əi > -ai의 변화과정을 경과하고, 灰韻은 \*-wuul > \*-wuuj > \*-wə(ə)j > \*-wəi > -wai의 변화과정을 경과한다.
- 9) 백스터(Baxter 1992: 309)는 \*-ps > \*-ts > \*-js > -jH의 변화 과정을 경과했

는 -ih까지 변화했는지 -j까지 변화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운미 \*-s가 -ih로 변화한 것으로 가정하고, 齊·梁·陳·隋 시기 泰韻의 운모는 -(w)<sup>10</sup>aih로 재구했다.

둘째, 2등운 佳韻은 齊·梁·陳·隋 시기부터 하나의 독립적인韻을 형성하였다. 鄭張尚芳에 의거하여 齊·梁·陳·隋 시기 佳韻의 운모는 -ɣ(w)ε로 재구했다.<sup>11)</sup> 또 다른 2등운 皆韻은 齊 시기를 거쳐서 梁 시기부터 중고 시기의 皆韻이 형성되었다고 추론한다. 鄭張尚芳에 의거하여 齊·梁·陳·隋 시기 皆韻의 운모는 -ɣ(w)ei로 재구했다.<sup>12)</sup> 또 다른 2등운 夬韻은 齊·梁·陳·隋 시기 압운이 적지만, 다른韻의 압운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독립된韻은 형성했다고 추론했으며, 夬韻의 운모는 -ɣ(w)aih로 재구했다.

셋째, 3등운 廢韻은 齊·梁·陳·隋 시기 압운이 적지만, 다른韻의 압운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독립된韻은 형성했다고 추론했으며, 齊·梁·陳·隋 시기 廢韻의 운모는 중고 시기와 같은 -e를 주요모음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i(w)eih로 재구했다. 또 다른 3등운 祭韻은 齊·梁·陳·隋 시기 祭韻의 운모는 -[j, ɨ]<sup>13)</sup>(w)eih로 재구했다.

넷째, 4등운 齊韻은 성조에 따라서 다르게 재구했다. 평성과 상성의 齊韻은 齊·梁·陳·隋 시기부터 하나의 독립적인韻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거

다고 주장한다. 鄭張尚芳(2003)과 다르게 \*-t가 \*-j로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본 논문에서는 鄭張尚芳의 주장을 채택하지만, 이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후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10) 본 논문에서 (w)와 같은 표기를 사용하는데, 이는 w를 동반할 수도 있고,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1) 鄭張尚芳(2003: 222)에 의하면 佳韻은 \*-ree > -rei > -rei > -ɣei > -ɣε와 같은 변화과정을 경과한다.
- 12) 脂部 기원 중고 皆韻은 \*-rii > \*-rei > -ɣei의 변화과정을 경과하고, 微部·之部 기원 중고 皆韻 \*-ruu- > \*-rəu- > -ɣei- > -ɣei의 변화과정을 경과한다.(鄭張尚芳 2003: 222)
- 13) 본 논문에서 {A, B}와 같은 표기를 사용하는데, 이는 A혹은 B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의 齊韻은 여전히 祭韻과 압운하는 경우가 많았다. 鄭張尚芳(2003: 222)에 의하면 齊韻은 \*-ii > -ei의 변화 과정을 경과한다. 齊·梁·陳·隋 시기 평성과 상성 齊韻의 운모는 -(w)ei로 재구했다. 거성의 齊韻의 운모는 -(w)eih로 재구했다.

위에서 재구한 齊·梁·陳·隋 시기 蟹攝 운들의 음가와 鄭張尚芳(2003: 71-72, 246-247)이 재구한 전기 중고 한어 시기 蟹攝의 음가를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齊·梁·陳·隋 시기 蟹攝의 재구음

	齊·梁·陳·隋 시기		전기 중고 한어 시기 <sup>14)</sup>	
1등	哈韻	-ɬi	哈韻	-ɬi
	灰韻	-wɬi	灰韻	-wɬi
	泰韻	-(w)aiɦ	泰韻	-(w)ai
2등	佳韻	-ɣ(w)e	佳韻	-ɣ(w)e
	皆韻	-ɣ(w)ei	皆韻	-ɣ(w)ei
	夬韻	-ɣ(w)aiɦ	夬韻	-ɣ(w)ai
3등	祭韻	-{j, i}(w)eih	祭韻	祭A -j(w)ei <sup>15)</sup> 祭B -ɣi(w)ei
	廢韻	-i(w)eih	廢韻	-{j, i}(w)ei
4등	齊韻 평성, 상성	-(w)ei	齊韻	-(w)ei
	齊韻 거성	-(w)eih		

### 2. 3·4등 개음

중고시기의 介音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고 한어 일부 3등운에 나

14) 鄭張尚芳(2003)에 근거했으나, 두 가지 수정을 가했다. 첫째, 중고 시기 3등운의 개음을 {j, i}로 수정했다. 둘째, 중고 시기 합구 개음을 -w-로 수정했다.

15) 작은 대문자 E(ε: Small Capital E): e와 ε사이 정확히 가운데 높이의 평순 전설모음을 표기하는 부호이다.(박선우·이주희 2007: 70)

타나는 重紐 현상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고 한어 3등운의 介音은 重紐 현상으로 인해 두 류로 나뉘어 나타난다.

重紐는 支, 脂, 祭, 眞(諄), 仙, 宵, 侵, 鹽 8개의 3등운 글자 중 脣·牙·喉音 聲母字<sup>16)</sup>에서 開口와 撮口의 차이 외에도 反切下字가 또 다른 두 류로 나뉘는 현상을 의미한다. 韻圖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3등과 4등 칸에 배열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韻이다.

이러한 重紐는 모두 3등운에 속하지만, 等韻圖에서 4등 칸에 배치되는 순·아·후음을 일반적으로 重紐 4등 또는 重紐 A류라고 부른다. 等韻圖에서 3등칸에 배치되는 순·아·후음을 일반적으로 重紐 3등 또는 重紐 B류라고 부른다.<sup>17)</sup> 본 논문에서도 이 명칭을 따른다.

重紐의 舌·齒音과 일반 3등운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하였다. 麥耘(1992:121-124)은 《切韻(王三)》을 분석하여 重紐A류는 精系, 照三系, 日母, 喻四母와 관계가 밀접하고, 重紐B류는 知系, 照二系, 喻三母, 來母와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밝혔다. 편의상 精系, 照三系, 日母, 喻四母를 C1, 知系, 照二系, 喻三母, 來母를 C2라고 부르기로 하자.

백스터(Baxter 1992: 59-61)에 의하면 성모의 자질에 따라 개음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t, d, s, z, n ʈ/와 전설 모음은 고조음성 자질을 가지며, /p, b, m, f, k, g, w, h/와 후설 모음은 저조음성<sup>18)</sup> 자질을 가진다. 따라서 3등운이 고조음성 성모 C1과 결합하는 경우 \*-i-보다 고조음성

16) 후음에는 影·曉母만 포함된다. 匣母는 3등운이 없으므로, 重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喻母는 3등운과 4등운에 모두 나타나지만, 이 차이는 상고 시기 성모 기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重紐 현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 周法高(1948)가 처음으로 제시했다.

18) ‘저음조성(低音調性: grave)’이란, 음향 스펙트럼상에서 저주파대역(低周波帶域)으로의 에너지의 집중이 보이는 음이다. 지각면(知覺面) 혹은 청각면(聽覺面)에서 말하면, 저음조성의 음은 청각과 시각(視覺)의 자연적인 연합에 의해서, ‘어두운’ 혹은 ‘선명하지 않은’ 음이라고 말해진다. 저음조성 음은 조음적으로 주변적(周邊的)인 음으로서 그 구강 공명기(口腔共鳴器)는 순음(脣音) 음 소나 연구개 음소 [p], [k], [u] 등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널리,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다.(이정민 1987: 721)

성격을 가지는 \*j-를 개음으로 설정한다. 저조음성 성모 脣·牙·喉音, C2와 결합하는 경우 \*j-보다 저조음성 성격을 가지는 \*i-로 개음을 설정한다. 또한 重紐 3등운 개음의 음운도 저조음성 자질을 가지기 때문에 개음 \*i-로 설정하고, 重紐 4등운은 상대적으로 고조음성 자질을 가지므로 저조음성 성모 C2와 접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음 \*j-를 동반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를 근거로 전기 중고 한어 시기의 개음을 <표 3>과 같이 정리한다.

<표 3> 전기 중고 한어 3등운 개음 체계<sup>19)</sup>

	脣·牙·喉音	舌·齒音·喻母	
		精系·照三系·日母· 喻四母(C1)	知系·照二系·喻三母· 來母(C2)
重紐韻	A류 /j/	/j/	/i/
	B류 /i/		
일반3등운	/i/		

<표 4> 후기 중고 한어 3등운 개음 체계<sup>20)</sup>

	脣·牙·喉音	舌·齒音·喻母	
		精系·照三系·日母· 喻四母(C1)	知系·照二系·喻三母· 來母(C2)
重紐韻	A류 /j/	/j/	/i/
	B류 /i/		
일반3등운	/i/		
4등운	/j/		

후기 중고 한어시기에는 4등운에 개음이 생성되었다고 본다. 후기 중고 한어 시기 생성된 4등운 개음은 A·C1류와 가까웠기 때문에, 후기 중고

19) 민지원(2009: 37)의 표를 참고로 한다.

20) 민지원(2009: 57)의 표를 참고로 한다.

한어 시기의 개음을 A·C1류·4등운의 개음인 /j/와 B·C2류의 개음인 /i/ 두 류로 수립한다.(민지원 2009: 38-57)

### Ⅲ. 慧琳 《一切經音義》의 蟹攝

#### 1. 1등운

慧琳 《一切經音義》의 蟹攝에서 1등운 泰韻은 또 다른 蟹攝의 1등운인 哈韻·灰韻과 반절하자가 서로 혼용한다. 慧琳 《一切經音義》의 반절에서 哈韻·灰韻 去聲의 被釋字는 총 59개이다.(黃淬伯 1931) 그 중 本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34개이고, 泰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25개이다. 泰韻의 被釋字는 총 31개이다. 그 중 本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19개이고, 哈韻·灰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12개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泰韻과 哈(灰)韻의 반절하자 혼용 현황(黃淬伯 1931)

攝	韻	開合	被釋字의 수	혼용되지 않은 경우	혼용된 경우
蟹	哈/灰	開口	29	17(58.62%) <sup>21)</sup>	12(41.38%)
		合口	30	17(56.67%)	13(43.33%)
	泰	開口	17	11(64.71%)	6(35.29%)
		合口	14	8(57.14%)	6(42.86%)
합계			90	53(58.89%)	37(41.11%)

21) 개구 글자는 총 17개이다. 16개는 개구 代韻 글자는 本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하지만, 1개는 합구 隊韻을 반절하자로 사용한다. 被釋字 倍(代韻)의 반절하자는 每(隊韻)와 妹(隊韻)이다. 본 연구에서는 被釋字자 개구 글자이기 때문에 개구로 분류한다.

蟹攝의 1등운 泰韻과 또 다른 1등운 哈(灰)韻 去聲字가 서로 혼용되는 비율은 41.11%이다. 박성준(2021: 65)에서 泰韻의 齊·梁·陳·隋 시기 음가를  $-(w)aih$ 로 재구했고, 본 연구의 II장에서 전기 중고 한어 시기에는 泰韻의 음가를  $-ih$ 가 이미  $-i$ 로 변화한  $-(w)ai$ 로 가정했다.

그 이후 慧琳 《一切經音義》 시기에는 泰韻의 운미  $-i$ 가 주요모음  $-a$ 를 상승시켜서,  $-a$ 로 변화시킨다. 즉, 哈(灰)韻의 음가  $-(w)ai$ 와 유사해져서 서로 혼용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慧琳 《一切經音義》시기 泰韻의 음가가  $-(w)ai > -(w)ai$ 로 이미 변화했거나,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추론한다.

## 2. 2등운

慧琳 《一切經音義》의 蟹攝에서 2등운 佳韻은 또 다른 蟹攝의 1등운 皆韻·夬韻과 반절하자가 서로 혼용된다. 慧琳 《一切經音義》의 반절에서 佳韻의 被釋字는 총 40개이다.(黃淬伯 1931) 그 중 本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18개이고, 皆韻, 夬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22개이다. 皆韻의 被釋字는 총 45개이다. 그 중 本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38개이고, 佳韻·夬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7개이다. 夬韻의 被釋字는 총 10개이다. 그 중 本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1개이고, 佳韻·皆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9개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표 6>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佳韻과 皆韻, 夬韻의 반절하자 혼용 현황 (黃淬伯 1931)

攝	韻	開合	被釋字의 수	혼용되지 않은 경우	혼용된 경우
蟹	佳	開口	38	18(47.37%)	20(52.63%)
		合口	2	0	2(100%)
	皆	開口	42	35(83.33%)	7(16.67%)
		合口	3	3(100%)	0

攝	韻	開合	被釋字의 수	혼용되지 않은 경우	혼용된 경우
蟹	夬	開口	7	0	7(100%)
		合口	3	1(33.33%)	2(66.67%) <sup>22)</sup>
합계			95	57(60%)	38(40%)

蟹攝의 2등은 夬韻과 또 다른 2등은 佳韻, 皆韻 去聲字가 서로 혼용되는 비율은 40%이다. 박성준(2021: 66)에서 夬韻의 齊·梁·陳·隋 시기 음가를  $-y(w)aih$ 로 재구했고, 2장에서 전기 중고 한어 시기 夬韻의 음가를  $-ih$ 가 이미  $-i$ 로 변화한  $-y(w)ai$ 로 가정했다.

그 이후 慧琳 《一切經音義》 시기에 夬韻의 운미  $-i$ 가 주요모음  $-a$ 를 상승시켜서,  $-ε$ 로 변화시킨다. 즉, 佳韻의 음가  $-y(w)e$ , 皆韻의 음가  $-y(w)ei$ 와 유사해져서 서로 혼용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慧琳 《一切經音義》시기 夬韻의 음가가  $-y(w)ai > -y(w)ei$ 로 이미 변화했거나,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추론한다.

### 3. 3·4등운

慧琳 《一切經音義》의 蟹攝에서 4등운 齊韻과 혼용된 3등운은 祭韻과 廢韻이다. 慧琳 《一切經音義》의 반절에서 齊韻 去聲의 被釋字는 총 63개이다.(黃淳伯 1931) 그 중 本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52개이고, 祭韻字, 廢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11개이다. 祭韻의 被釋字는 총 53개이다. 그 중 本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35개이고, 齊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18개이다. 廢韻의 被釋字는 총 7개이다. 그 중 本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5개이고, 齊韻字를 반절하자로 사용한 것은 2개이다.

22) 2개 중 하나인 被釋字 快(합구)의 반절하자는 邁(개구)와 怪(합구)이다. 被釋字 快가 합구이기 때문에 우선 합구에 넣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후에 연구를 더 진행하도록 한다.

〈표 7〉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齊韻과 祭韻, 廢韻의 반절하자 혼용 현황(黃淬伯 1931)

攝	韻	開合	被釋字의 수	혼용되지 않은 경우	혼용된 경우
蟹	齊	開合	63	52(82.54%)	11(17.46%)
		開口	61	52(85.25%)	9(14.75%)
		合口	2	0(0%)	2(100%)
	祭	開合	53	35(66.04%)	18(33.96%)
		開口	33	18(54.55%)	15(45.45%)
		合口	20	17(85%)	3(15%)
	廢	開合	7	5(71.43%)	2(28.57%)
		開口	5	3(60%)	2(40%)
		合口	2	2(100%)	0(0%)
합계			123	92(74.80%)	31(25.20%)

齊韻과 重紐 A·B류, 설·치음의 관계를 반절상자와 반절하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重紐A·B류와 설·치음을 반절상자로 사용하는 齊韻 被釋字의 수는 총 33개이다. 그 중 반절상자가 重紐A류·C1인 경우는 33개, 重紐B류·C2인 경우는 없다. 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慧琳 《一切經音義》의 重紐A·B류와 설·치음을 반절상자로 사용하는 齊韻

韻	開合	A류	精系	B류	來母	합
齊	開口	26	5	·	·	31
	合口	2	·	·	·	2

重紐A·B류와 설·치음을 반절하자로 사용하는 齊韻 被釋字의 수는 총 11개이다. 그 중 반절상자가 重紐A류·C1인 경우는 9개, 重紐B류·C2인 경우는 2개이다. 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9〉 慧琳 《一切經音義》의 重紐A·B류와 설·치음을 반절하자로 사용하는 齊韻

韻	開合	A류	精系	照三系	日母	喻四母	B류	知系	照二系	喻三母	來母	합
齊	開口	1	3	1	·	2	·	·	·	·	2	9
	合口	·	·	·	·	2	·	·	·	·	·	2

〈표 8〉과 〈표 9〉를 보면 4등운 齊韻의 개음은 일반3등운, 重紐B류·C2류의 개음 -i-보다 重紐 A류, C1류의 개음 -j-와 더 가까울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4등운 齊韻에 생긴 개음을 -j-으로 보고, 慧琳 《一切經音義》시기 齊韻의 음가가 -(w)ei > -j(w)ei로 이미 변화했거나,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추론한다. 3등운 祭韻의 음가는 전기 중고 한어 시기와 같이 -[j, ɨ](w)ei로 재구했다. 3등운 廢韻의 음가는 전기 중고 한어 시기에는 -[j, ɨ](w)ei로 재구했는데, 운미 -i의 영향으로 주요모음 -ɛ가 전설모음화하여 -ɛ로 변화하여 주요모음이 -ɛ인 3등운 祭韻과 주요모음 -e인 4등운 齊韻과 혼용된 것으로 추론한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慧琳 《一切經音義》의 蟹攝을 분석하여 전기 중고 한어 시기의 음운 체계와 어떠한 다른 측면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음운 현상이 발생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I 장 2절에서 慧琳 《一切經音義》가 그 당시 사대부 계층의 표준음 체계를 대표한다고 언급했으며, II장에서는 《切韻》이 전기 중고 한어 시기의 표준음 체계를 대표한다고 언급했다. 전기 중고 한어를 대표하는 《切韻》의 음운 체계와 비교했을 때, 慧琳 《一切經音義》에는 새로운 음운 현상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1등운 중운이 慧琳 《一切經音義》에서 어느 정도 합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전기 중고 한어 시기 泰韻은 거성 운미 \*-s가 늦게 변화

하여 독립된 운을 이루었는데, 慧琳 《一切經音義》 시기에 운미 -i가 주요모음 -a를 상승시켜서, 哈(灰)韻의 주요모음 -a와 유사해져서 서로 혼용된 것으로 추론했다.

	齊·梁·陳·隋		전기 중고 한어		慧琳 《一切經音義》
1등운 泰韻	-(w)aih	>	-(w)ai	>	-(w)ai ?23)

둘째, 2등운 중운도 慧琳 《一切經音義》에서 어느 정도 합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전기 중고 한어 시기 夫韻도 거성 운미 \*-s가 늦게 변화하여 독립된 운을 이루었는데, 慧琳 《一切經音義》 시기에 운미 -i가 주요모음 -a를 상승시켜서, 佳韻과 皆韻의 주요모음 -ε와 유사해져서 서로 혼용된 것으로 추론했다.

	齊·梁·陳·隋		전기 중고 한어		慧琳 《一切經音義》
2등운 夫韻	-ɣ(w)aih	>	-ɣ(w)ai	>	-ɣ(w)ei ?

셋째, 《切韻》에서는 4등운 개음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慧琳 《一切經音義》에는 4등운 개음이 형성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개음이 형성된 4등운은 3등운과 혼용되었음을 근거로, 새롭게 형성된 4등운 개음이 3등운 개음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추론했다. 3등운 개음에는 重紐 A류와 C1류의 개음 -j-와 일반 3등운, 重紐 B류와 C2류의 개음 -i- 두 가지가 있는데, 慧琳 《一切經音義》에서 형성된 4등운 개음은 重紐 A류와 C1류의 개음 -j-와 더 유사함을 밝혔다. 慧琳 《一切經音義》의 4등운 齊韻의 음가가 -(w)ei > -j(w)ei로 이미 변화했거나,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23) (?)표시로 변화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밝혀냈다.

	齊·梁·陳·隋		전기 중고 한어		慧琳 《一切經音義》
4등운 齊韻	-(w)eih	>	-(w)ei	>	-j(w)ei ?

慧琳 《一切經音義》의 3등운 廢韻의 음가는 전기 중고 한어 시기 -[j, i] (w)ei에서 운미 -i의 영향으로 주요모음이 전설모음화하여 -[j, i] (w)ei로 이미 변화했거나,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밝혀냈다.

	齊·梁·陳·隋		전기 중고 한어		慧琳 《一切經音義》
3등운 廢韻	-i(w)eih	>	-[j, i] (w)ei	>	-[j, i] (w)ei ?

### < 참고문헌 >

- 권혁준, 〈後期中古漢語의 음운 체계〉, 《中國語文論叢》 제22집, 2002.  
 민지원, 《中國漢語 3·4等韻의 介音 研究》, 고려대학교, 2009.  
 박성준, 《中古 漢語 蟹攝의 형성과정 고찰》, 고려대학교, 2021.  
 艾 菲, 《慧琳〈一切經音義〉의 음운 현상》, 고려대학교, 2010.  
 Geoffrey K. Pullum·William A. Ladusaw 저, 박선우·이주희 역, 《음성부호 가이드북》, 서울: 한국문화사, 2007.  
 Karlgren, Bernhard 저, 최영애 역, 《古代漢語音韻學概要》, 서울: 민음사, 1985.  
 儲泰松, 《唐五代關中方音研究》, 安徽: 安徽大學出版社, 2005.  
 丁邦新, 〈重紐의 介音差異〉, 《聲韻論叢》 第6期, 1997.

- 董同龢, 《漢語音韻學》, 北京: 中華書局, 1965.
- 黃涇伯, 《慧琳一切經音義反切攷》, 臺灣商務印書館, 1931.
- 黃涇伯, 《唐代關中方言音系》,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 黃笑山, 《〈切韻〉和中唐五代音位系統》, 臺北: 文津出版社, 1994.
- 金雪萊, 《慧琳〈一切經音義〉語音研究》, 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 李榮, 《切韻音系》, 臺北: 鼎文書局, 1956.
- 李新魁, 〈重紐研究〉, 《李新魁語言學論集》, 1984.
- 陸志韋, 〈三四等與所謂‘喻化’〉, 《燕京學報》第26期, 1939.
- 羅常培, 〈釋內外轉〉, 《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四本第二分, 1933.
- 馬文熙·張歸璧, 《古漢語知識辭典》, 北京: 中華書局, 2004.
- 麥耘, 〈論重紐及《切韻》的介音系統〉, 《語言研究》第2期, 1992.
- 邵榮芬, 〈《切韻》音系的性質和它在漢語語音史上的地位〉, 《中國語文》第4輯, 1961.
- 邵榮芬, 《切韻研究(校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2.
-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1958.
- 王力, 《漢語音韻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 王力, 《漢語音韻》, 北京: 中華書局, 2003.
- 楊劍橋, 《漢語現代音韻學》,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6.
- 楊劍橋, 《實用古漢語知識寶典》,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8.
- 姚永銘, 《慧琳〈一切經音義〉研究》, 江蘇古籍出版社, 2003.
- 趙翠陽, 《慧琳〈一切經音義〉韻類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 2009.
- 鄭張尚芳, 〈重紐的來源及其反映〉, 《聲韻論叢》第6期, 1997.
- 鄭張尚芳,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
- 周法高, 〈廣韻重紐的研究〉, 《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13期, 1948a.
- 周法高, 〈玄應反切考〉, 《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20本, 1948b.
- 周法高, 〈論上古音和切韻音〉, 《中國音韻學論文集》,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84.

- 周祖謨, 〈切韻的性質和它的音系基礎〉, 《語言學論叢》 第5期, 1963.
- Baxter, William,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Mouton de Gruyter, 1992.
- Baxter, William, *Old Chinese: a new reconstr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Jakobson, Roman·Fant, Gunnar·Halle, Morris, *Preliminaries to Speech Analysis: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Their Correlates*, The M.I.T. Press, 1965.
- Pulleyblank, Edwin,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Chinese*,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84.
- 《韻鏡校注》, 臺北: 藝文印書館, 2005年 影印 16版.
- 《等韻五鍾》, 臺北: 藝文印書館, 2005年 影印 8版.
- 《四聲等子》, 臺北: 藝文印書館, 1968年 中國影印.

###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construct the phonological system of Huilín's *Yiqièjīngyīnyì*'s Xièshè[蟹攝]. Huilín's *Yiqièjīngyīnyì* is a book of transitional period between Early Middle Chinese and Late Middle Chinese period. If you study the phonological system of this book, you can find that phonological changes between Early Middle Chinese and Late Middle Chinese period. Xièshè is selected as a research topic because Xièshè has a special rhyme that only have falling tone. Also Xièshè includes all of Division I·II·III·IV.

We can find that Tàiyùn[泰韻] was merged with Hāi(Huī)yùn[哈(灰)韻], in Huilín's *Yiqièjīngyīnyì*. It means that ending -i raises the main

vowel -a to -ɛ. Also we can find that Guàiyùn[夬韻] was merged with Jiāyùn[佳韻] and Jiēyùn[皆韻] in Huilín's *Yiqièjīngyīnyì*. And it means that ending -i raises the main vowel -a to -ɛ.

Early Middle Chinese, there was no medial in DivisionIV. But in Huilín's *Yiqièjīngyīnyì*, it can be seen that medial was formed in DivisionIV. Fǎnqiè analysis, we can deduce that DivisionIV's medial was similar with medial -j- that was medial of DivisionIII Chóngniǔ A, C1.

Key Words : 혜림(Huilín), 일체경음의(*Yiqièjīngyīnyì*), 중고음(Middle Chinese), 해섭(Xièshè), 개음(Medial)

